

‘에너지·AI’ 공공기관, 광주·전남 이전 실현돼야



<5·끝> '5극3특' 국토균형발전

올 하반기 2차 이전 본격화 전망
李대통령 “무늬만 혁신도시” 탈피
지역특성·산업여건 부합 기관 배치
시·도, 신산업 연계 이전 전략 수립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 에너지, 인공지능(AI), 농생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기관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아 오는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11월,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대

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5극3특 국토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5극3특’은 지역에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배치를 목표로 지역 정주여건 및 일자리 향상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는 AI·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시존2’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된 데 맞춰,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을 강화하고 AI산업위원회 등 민간 협업체계를 재정비했다. 정부 추경에는 AI 2단계 사업과 국가 AI컴퓨팅센터 예산도 포함됐다.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상징성과 KTX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 기존 인프라를 강점으로 전남도와 함께 ‘시·도 원팀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산업과 인프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서울상황실 현판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광주광역시청 대외협력본부에서 열린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서울상황실 현판식’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은옥 정책기획관, 정준호·전진숙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박균택 국회의원,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현성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관련기사 3면
광주시 제공

전라남도 역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일찍이 2차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전남도는 농수산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전남연구원

에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앞장섰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 혁신도시)가 지난해 국토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년 계획 분석’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광주·전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지역인재 채용 등 핵심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이미 혁신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으로서 추가 기관 유치에 따른 리스크가 낮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3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광주·전남지역 20일부터 장마 시작

이번 주부터 광주·전남에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0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기상청

의 예보대로 이날부터 비가 시작되면 평년(6월23일)보다 3일 빠른 장마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21일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정체전선이 남해안에 위치하면서 광주

기상청 “평년보다 3일 빨라”
높은 습도 무더위 이어질 듯

와 전남에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었다.

정체전선에서 비가 내릴 때 강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소강상태에 들 때는 습도가 높아져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평균 6월23일에 장마가 시작돼, 7월24일에 종료돼 약 31일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는 6월22일에 장마가 시작돼 7월24일 종료됐다.

최근 30년 평균 장마 기간 강수량은 338.7mm로, 강수일수는 16.9일이다. 지

난해는 6월 22일에 장마가 시작됐으며 433mm의 비가 내려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비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수 시점에 변동성이 있어 정확한 장마 시작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강수 집중 예상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보훈대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남일보에서 제정하였으며 전남서부보훈지청과 전라남도가 후원하여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등을 위해 크게 헌신한 분에게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9일(목) 오전 11시 전남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지역민의 많은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수상자

- | | |
|-------------------------|-------------------------------|
| • 상이군경 부문-정재욱(80·해남) | • 특별 부문(애국지사 유족)-윤미혜(64·여수) |
| • 중상이 배우자 부문-김축여(75·보성) | • 특별 부문(6·25참전유공자)-강이원(91·장성) |
| • 미망인 부문-오야모(82·목포) | • 특별 부문(고엽제후유의증)-김해룡(77·목포) |
| • 유족 부문-박진규(75·강진) | • 특별 부문(5·18부상자)-정석봉(82·목포) |

시상식

- | | |
|--------------------------|-----------------------|
| • 일 시 : 6월 19일(목) 오전 11시 | • 장 소 : 전남보훈회관 4층 대강당 |
|--------------------------|-----------------------|

